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가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 및 국민정체성의 조절효과

Effects of Social Exclusion on Unification Perception of Adolescents and Buffering Effect of National Identity

전병주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Byeong-Joo Jeon(okjbj@cbnu.ac.kr)

요약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가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이 과정에서 국민정체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경기, 충남·북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 청소년, 다문화가족 청소년 399명을 조사대상자로 구성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료분석을 위하여 PASW Statistics 18.0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청소년과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통일의식은 각각 3.22(SD=.49)와 2.96(SD=.75)으로 나타나 일반 청소년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사대상자들의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 요인의 영향력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청소년은 국민정체성, 통일교육, 학교생활에서의 배제 등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문화가족 청소년은 가족관계에서의 배제, 국민정체성, 학교생활에서의 배제 등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배제와 통일의식과의 관계에서 국민정체성의 조절효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청소년은 학교생활에서의 배제영역, 다문화가족 청소년은 가족관계와 학교생활에서의 배제영역에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을 고취하고,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통일정책을 재정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중심어 : | 사회적 배제 | 국민정체성 | 통일의식 | 다문화가족 청소년 |

Abstract

This study has analyzed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unification perception of adolescents. To achieve this, 399 adolescents who live in Gyeonggi, Chungnam and Chungbuk area were selected as study subjects. For the data analysis, PASW Statistics 18.0 was used.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unification perception of general and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were 3.22 and 2.96 respectively showing that general adolescents were significantly higher. Second,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unification perception were shown to be same for each group, but significantly different for their influence of each group.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unification perception of general adolescents were shown in the order of national identity, unification education, exclusion of school life.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unification perception of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y were shown in the order of exclusion of family relationship, national identity, exclusion of school life. Thir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exclusion and unification perception, buffering effects of national identity were identified to be different in each group. Based on these results, several ways were suggested to improve the unification perception of adolescents.

■ keyword : | Social Exclusion | National Identity | Unification Perception |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 |

접수일자 : 2015년 05월 26일

수정일자 : 2015년 07월 07일

심사완료일 : 2015년 07월 07일

교신저자 : 전병주, e-mail : okjbj@cbnu.ac.kr

1. 서론

한국은 미국과 중국 등의 열강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우호를 다짐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과 실리적 외교를 추구하면서 미래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전략적이고 중·장기적인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일본과는 독도 및 위안부 문제 등으로 심각한 외교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한반도의 정세 변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3대 권력세습이 나타났고, 북한의 체제 불안정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현 정부에서는 어느 때보다 통일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과 시도들이 나타났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주장을 내세워 통일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주도했으며, 이후 통일문제에 대한 정부의 구상과 정책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1]. 하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여러 정책들은 국제정세의 변화와 역사변동의 긴 맥락과 호흡에서 검토해야 하며, 통일에 대한 담론을 더욱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주요한 변수이므로 통일의식에 대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2014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전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통일의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1], 통일의 필요성에 대하여 '별로 또는 전혀 필요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1.7%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일부와 통일교육원 등이 실시한 청소년 통일의식조사[2]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또는 전혀 필요 없다'라고 응답한 청소년 비율은 33.1%로 조사되었다. 이 2개의 조사에서 사용된 척도가 다르게 구성되어 직접적인 결과비교는 어렵지만, 적어도 청소년들이 성인들보다 통일의 필요성을 회의적으로 생각한다거나, 필요성에는 동의한다 하더라도 그 의미 부여가 상당히 약해진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과거에는 단일민족이라는 정서적 공감대를 통하여 민족공동체 의식이 강하게 형성되어 수많은 난국을 타개할 수 있었지만, 최근의 한국 사회가 다문화되면서 국민적 관심사를 도출하거나 사회적으로 여론을 통일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국민적 정서와 가치 등

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더 큰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2014년 기준으로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과의 혼인은 2000년도와 비교하여 약 3.1배 증가하였다[3].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청소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6만8천명이 재학 중이며, 그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4].

하지만, 다문화가족의 청소년들은 의사소통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상이한 문화 등으로 인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적응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5][6]. 심지어 사회에서 차별과 소외를 경험하게 되면서 사회적 수용을 얻기 위하여 맹목적으로 친구를 과도하게 따르거나, 기존 사회적 정서 내지 문화로의 동화를 강요받기도 한다[7]. 때로는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은 학교와 지역 사회와의 관계에서 고립되는 상황을 벗어나고 사회적 수용을 얻기 위하여 친구들을 과도하게 따르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6].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자아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고, 스스로 한국 국민임을 부정하거나 국민정체성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8].

이러한 우려 속에서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에게 단지 국민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사회의 관심사와 사회적 조류에 동조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빠른 사회적 변화 속에서 다문화 현상은 삶의 경계를 불확실하게 하고, 기존의 공통적 가치관에 변화를 초래하여 그 동안 국민들이 갖고 있던 통일의식의 변화를 일으키거나, 통일에 대한 부정적 사고를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통합되어 미래 통일의 주체로서 역할을 완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구를 토대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청소년의 통일과 관련한 연구는 주로 일반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통일의식의 실태 내지는 통일교육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거나[9][10], 탈북자[11] 또는 다문화가족 청소년[8]의 국가정체성에 대한 연구와 같이 분절적 형태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현 정부에서 통일에 대한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제화 및 다문화 시대에 맞추어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통일의식과 관련한 연구가 시급함에도 아직까지 그 문제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배제가 통일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으며, 이 관계에서 국민정체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반 청소년과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두 집단 간 비교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보다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와 올바른 통일외식을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일반 청소년과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통일외식은 차이가 있는가?
- 둘째, 일반 청소년과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인식하는 사회적 배제는 통일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셋째, 국민정체성은 사회적 배제와 통일외식과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갖는가?

II. 이론적 배경

결혼이주 1세대의 정주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사회는 단일민족이라는 동질성만으로 유지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출신과 성장 배경을 가진 다문화가족들이 한국 사회의 주류로 활동하지 못하고, 사회적 차별과 소외를 지속적으로 경험한다면 사회적 이탈과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나타나 사회적 경계대상이 될 수도 있다[5].

더욱이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삶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는 서로 연관되어 다면적이고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그들의 삶도 다차원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여기에는 단일요인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경제적 차원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등 복합적인 원인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 필요하므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에 대해 주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배제는 한 개인 또는 집단에게 가족, 학교 및 지역사회 등에서 다차원적인 불리함이 부과되는 동태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이 사회적 배제를 인식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느끼는 소속감’ 내지는 ‘국가 또는 국민과 연관하여 갖고 있는 신념과 감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국민정체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14]. 최근에 국민정체성의 핵심은 민족(종족-혈통)보다는 시민(법-정치-제도)이 강조되고 있어[8] 현재의 사회적 인식으로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에게 기존의 한국의 정서 내지 주요 관심사에 대해 동참을 요구하는 것은 여러 한계점이 있다.

더욱이 일반 청소년들도 통일에 대한 의미 부여가 기성세대보다 많이 약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2], 같은 사회 울타리에 있지만 진정한 국민이라고 스스로 인식하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청소년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정서만 형성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한 회의론 내지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확산된다면 국가적으로 통일정책을 추진하는데 동력을 상실하게 되고[27], 분열의 양상 속에서 통일의 기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현재의 남북관계는 긴장과 대립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어떤 측면에서는 이전보다 더욱 어려워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 자체가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거나 실증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것 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꿈과 이상 속에 목표로 자리 잡고 있는 가치이기에[13]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어려운 현실적 여건과 맞물려 더욱 어렵다.

실례로 독일 통일 후 20여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실시된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사회과학연구센터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구 동독지역 주민들 중에서 22%만이 자신을 실질적으로 독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62%는 통일 독일의 국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16%는 과거 분단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응답까지 하였다[12]. 이것은 구 동독지역의 주민들이 통일 독일의 국민으로서 완전히 융화되지 못하고 2등 국민이라는 마음의 상처를 갖고 소외감과 상실감 속에서 생활하고, 통일 독일 후의 사회적 통합에 집중하느라 구 동독에서 발생했던 탄압과 차별에 대한 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 당시의 아픔이 여전히 남

아 있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은 단순한 물질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주요 생활공간인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소외, 차별 등의 배제를 경험하거나, 사회의 비주류로 이질적인 문화와 정서에서 노출되었다. 이런 삶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미래 삶에 대한 설계를 포기하고, 사회에서의 기회까지도 잃게 되면서 사회의 전반적인 정서와 가치에 동조하지 못하게 되거나,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수동적이 될 것이다[15]. 결국,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은 한국 사회에서 현재만의 과제가 아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통일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인 동참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 통일 후 엄청난 환경변화가 예상되는 한국 사회에 적응문제를 드러내고 사회적 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청소년 시기는 인생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함과 모호함이 크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 가치와 현실 속에서 자기 위치와 역할을 명확하게 자각해야 의욕적으로 독립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으므로[16]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야 하며,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은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다문화 정책은 중복적 내지 경쟁적 사업을 통하여 지원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복지정책과 상충되어 국민 간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사회적 분열을 초래하여 국가정체성과 국민적 일체감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을 받는다[20]. 실제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시혜적이고 온정적으로 진행되어 경제적 불황과 맞물려 한반도의 구조적 갈등, 통일 준비상황 및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 증진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19].

이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이질성을 해소하는 것이 요구되며, 나아가 사회의 진정한 동화와 통합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인간의 심리적·문화적 동질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을 인식하고[18], 국내에서 생활하는 소수 집단에게 동등한 자격과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실시하여 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으

로 거듭나고, 사회에 대한 신뢰 형성 및 상호 연대를 도모해야 한다. 사회적으로는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호간 동질감을 확보하고, 국가적으로 정치적 안정을 가져와 단일민족주의의 한계를 넘고[21] 통일 가치의 확대를 통하여 미래 통일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경기, 충남·북 지역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며, 일반 청소년과 다문화가족 청소년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학교, 다문화가족센터 및 지역 아동센터 관리자 등의를 받았으며, 학생들에게 연구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한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14년 9월~11월 이었고,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일부 문항을 수정하여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484부를 배포하여 425부가 회수(회수율: 87.8%)되었고, 응답이 불성실한 것을 제외한 399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설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인가사회학적 특성, 사회적 배제, 국민정체성 및 통일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사회적 배제의 척도는 이중섭·이용교(2009)[22]가 한국청소년패널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배제의 영역을 신체·정신적 건강 배제, 경제적 배제, 가족관계 배제, 학교생활 배제 등의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으로 이루어진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고, 여기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배제의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중섭·이용교(2009)연구[22]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74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690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민정체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박정균 외(2011)[23]의 척도를 수정하여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국민으로서 나라에 대한 애착, 자긍심, 헌신도 등의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하위요인의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조사대상자의 국민정체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박정균 외(2011)[23]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3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776으로 나타났다.

통일외식은 ‘청소년의 통일외식’을 조사하기 위해서 통일부에서 사용한 문항을 재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통일에 대한 필요성,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이해,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의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의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으로 이루어진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고, 여기서의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통일외식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784로 나타나 사용한 척도의 내적 일관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PASW Statistics 18.0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배제, 국민정체성 및 통일외식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각 집단별 통일외식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서 t검증을 했다. 마지막 단계에서 사회적 배제의 하위요인과 국민정체성과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여 사회적 배제와 통일외식의 관계에서 국민정체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 기법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들은 일반 청소년 213명(53.4%)과 다문화가족 청소년 186명(46.6%)으로 구성

되었다. 성별을 조사한 결과, 여성 190명(47.6%), 남성 209명(52.4%)으로 나타났다. 일반 청소년과 다문화가족 청소년 모두 남성이 각각 113명(53.1%), 96명(51.6%)으로 나타나 여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 중인 학교는 중학교 216명(54.1%), 고등학교 183명(45.9%)으로 나타났다. 일반 청소년과 다문화가족 청소년 모두 중학생이 각각 118명(55.4%), 98명(52.7%)으로 나타나 고등학생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을 조사한 결과, 시 지역 195명(48.9%), 군 지역 204명(51.1%)으로 나타났다. 일반 청소년은 시 지역 거주자가 더 많았고, 다문화가족 청소년은 군 지역 거주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나 도덕 등 정규 교과시간 이외에 통일교육에 참여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미참여’라고 응답한 경우 145명(36.3%), ‘참여’라고 응답한 경우 254명(63.7%)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일반	다문화	N(%)
유형		213(53.4)	186(46.6)	399(100.0)
성별	여성	100(46.9)	90(48.4)	190(47.6)
	남성	113(53.1)	96(51.6)	209(52.4)
학교급	중학교	118(55.4)	98(52.7)	216(54.1)
	고등학교	95(44.6)	88(47.3)	183(45.9)
거주 지역	시	113(53.1)	82(44.1)	195(48.9)
	군	100(46.9)	104(55.9)	204(51.1)
통일 교육	미참여	78(36.6)	67(36.0)	145(36.3)
	참여	135(63.4)	119(64.0)	254(63.7)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조사대상자들의 사회적 배제, 국민정체성 및 통일외식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서 일반 청소년과 다문화가족 청소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우선, 사회적 배제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신체·정신건강 영역에서 배제 수준은 일반 청소년과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각각 3.23(SD=.74), 3.37(SD=.75)로 나타나 두 집단 모두 보통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203, p<.05$). 경제영역에서의 배제 수준은 일반 청소년과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각각 2.72(SD=.93), 3.01(SD=.82)로 나타나 일반 청소년은 보통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문화가족 청소년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429, p<.01$). 가족관계 영역에서 배제 수준은 일반 청소년과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2.84($SD=.49$), 3.34($SD=.27$)로 나타나 일반 청소년은 보통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문화가족 청소년은 보통수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7.371, p<.001$). 학교생활 영역에서의 배제 수준은 일반 청소년과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3.30($SD=.75$), 3.46($SD=.72$)으로 나타나 두 집단 모두 보통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272, p<.05$).

국민정체성 수준은 일반 청소년과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각각 3.14($SD=.48$), 2.88($SD=.45$)로 나타나 일반 청소년은 보통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문화가족 청소년은 보통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청소년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174, p<.01$). 마지막으로, 통일외식 수준은 일반 청소년과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각각 3.22($SD=.49$), 2.96($SD=.75$)으로 나타나 일반 청소년은 보통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문화가족 청소년은 보통수준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청소년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4.308, p<.01$).

표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구분		M(SD)	t
사회적 배제	신체·정신건강	일반 3.23(.74) 다문화 3.37(.75)	-2.203*
	경제	일반 2.72(.93) 다문화 3.01(.82)	-3.429**
	가족관계	일반 2.84(.49) 다문화 3.34(.27)	-7.371***
	학교생활	일반 3.30(.75) 다문화 3.46(.72)	-2.272*
국민정체성	일반 3.14(.48) 다문화 2.88(.45)	3.174**	
통일외식	일반 3.27(.49) 다문화 2.96(.45)	4.308**	

* $p<.05$, ** $p<.01$, *** $p<.001$

3. 통일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반 청소년과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가 통일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 관계에서 국민

정체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모델 I에서는 성별, 학교급, 거주지역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을 투입하였다. 모델 II에서는 사회적 배제의 하위요인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고, 모델 III에서는 국민정체성을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델 IV에서는 사회적 배제의 하위요인과 국민정체성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발생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VIF(Variance Inflation Factor)값을 확인한 결과 모두 2.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 [표 3][표 4]와 같다.

우선, 일반 청소년의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모델 I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의 학교급($\beta=.169, p<.01$), 통일교육 참여($\beta=.252, p<.001$)가 통일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모델의 설명력은 12.7%로 나타났다($F=6.040, p<.001$). 모델 II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의 학교급($\beta=.160, p<.05$), 통일교육 참여($\beta=.236, p<.001$), 사회적 배제에서의 가족관계($\beta=-.179, p<.01$)와 학교생활($\beta=-.225, p<.001$)이 통일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모델 설명력은 모델 I에서 8.1% 유의미하게 증가한 19.3%로 나타났다($F=6.454, p<.001$). 그리고 모델 III에서는 학교급($\beta=.151, p<.05$), 통일교육 참여($\beta=.234, p<.001$), 사회적 배제에서의 가족관계($\beta=-.152, p<.05$)와 학교생활($\beta=-.205, p<.001$), 국민정체성($\beta=.288, p<.001$) 등이 통일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모델 III 설명력은 모델 II에서 3.7% 유의미하게 증가한 22.8%로 나타났다($F=6.641, p<.001$). 마지막으로 모델 IV에서는 학교급($\beta=.143, p<.05$), 통일교육 참여($\beta=.203, p<.01$), 사회적 배제에서의 가족관계($\beta=-.145, p<.05$)와 학교생활($\beta=-.184, p<.01$), 국민정체성($\beta=.271, p<.001$) 등이 통일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배제의 하위요인과 국민정체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학교생활($\beta=.157, p<.05$)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IV 설명력은 모델 III에서 3.0% 유의미하게 증가한 24.4%로 나타났다($F=5.893, p<.001$).

다음으로,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모델 I에서는 학교급($\beta=.160, p<.05$), 통일교육

참여($\beta=.175, p<.01$)가 통일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모델의 설명력은 7.0%로 나타났다 ($F=2.930, p<.001$). 모델II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의 학교급($\beta=.141, p<.05$), 통일교육 참여($\beta=.143, p<.05$), 사회적 배제에서의 가족관계($\beta=-.218, p<.001$)와 학교생활($\beta=-.129, p<.05$) 등이 통일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모델 설명력은 모델 I에서 6.4% 유의미하게 증가한 11.5%로 나타났다($F=3.151, p<.001$). 모델III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의 학교급($\beta=.140, p<.05$), 통일교육 참여($\beta=.137, p<.05$), 사회적 배제에서의 가족관계($\beta=-.211, p<.001$)와 학교생활($\beta=-.121, p<.05$), 국민정체성($\beta=.209, p<.001$) 등이 통일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모델III의 설명력은 모델II에서 3.7% 유의미하게 증가한 14.8%로 나타났다($F=3.685, p<.001$). 마지막으로, 모델IV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의 학교급($\beta=.132, p<.05$), 통일교육 참여($\beta=.117, p<.05$), 사회적 배제에서의 가족관계($\beta=-.185, p<.01$)와 학교생활($\beta=-.141, p<.05$), 국민정체성($\beta=.179, p<.01$) 등이 통일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배제의 하위요인과 국민정체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가족관계($\beta=.173, p<.01$)와 학교생활($\beta=.118, p<.05$)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델IV의 설명력은 모델III에서 4.8% 유의미하게 증가한 18.1%로

나타났다($F=3.662, p<.001$).

V. 결론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경기와 충남·북 지역의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399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인식하는 사회적 배제가 통일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 관계에서 국민정체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반 청소년과 다문화가족 청소년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집단에서의 주요 요인별 수준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적 배제는 모든 하위영역에서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은 사회적 배제에서의 경제영역에서만 보통수준으로 나타났고, 그 외의 영역에서는 보통수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청소년들은 사회적 배제에서의 경제적 영역과 가족관계영역에서는 보통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신체·정신건강과 학교생활에서의 영역은 보통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정체성은 일반 청소년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청소년은 보통수준보다 높은

표 3. 통일외식에 미치는 영향 및 국민정체성의 조절효과

구분	일반 청소년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모델 IV			
	β	t	β	t	β	t	β	t	VIF	
성별	.103	1.546	.097	1.438	.086	1.363	.078	1.109	1.195	
학교급	.169	2.445**	.160	2.389*	.151	2.295*	.143	2.194*	1.582	
거주지역	.088	.371	.075	.113	.083	.201	.062	.030	1.440	
통일교육	.252	2.996***	.236	2.885***	.234	2.838***	.203	2.711**	1.091	
사회적 배제	건강			-.038	-.505	-.093	-1.097	-.063	-.735	1.297
	경제			-.044	-.687	-.054	-.863	-.044	-.705	1.814
	가족			-.179	-2.538**	-.152	-2.303*	-.145	-2.211*	1.058
	학교			-.225	-2.794***	-.205	-2.730***	-.184	-2.650**	1.550
국민정체성					.288	3.322***	.271	3.139***	1.344	
상호 작용	건강*정체성							.079	.850	1.887
	경제*정체성							.054	.687	1.117
	가족*정체성							.093	1.381	1.026
	학교*정체성							.157	2.361*	1.133
R ²	.144		.225		.262		.292			
수정된 R ²	.127		.193		.228		.244			
R ² 변화량			.081***		.037**		.030**			
F	6.040**		6.454***		6.641***		5.893***			

더미변수: 성별(여-0), 학교급(중학교-0), 거주지역(시 지역-0), 통일교육(미참여-0)

*p<.05, **p<.01, ***p<.001

표 4.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 및 국민정체성의 조절효과

구분	다문화가족 청소년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모델 IV			
	β	t	β	t	β	t	β	t	VIF	
성별	.030	.403	.014	.194	.030	.419	.043	.636	1.133	
학교급	.160	1.994*	.141	1.611*	.140	1.609*	.132	1.512*	1.582	
거주지역	.111	1.183	.061	.609	.020	.202	.025	.358	1.347	
통일교육	.175	1.881**	.143	1.685*	.137	1.584*	.117	1.202*	1.832	
사회적 배제	건강			-.040	-.495	-.042	-.527	-.044	-.537	1.327
	경제			-.036	-.513	-.046	-.664	-.041	-.629	1.089
	가족			-.218	-2.724***	-.211	-2.694***	-.185	-2.433**	1.306
	학교			-.129	-1.463*	-.121	-1.438*	-.141	-1.623*	1.464
국민정체성					.209	2.951***	.179	2.419**	1.105	
상호 작용	건강*정체성							.110	1.099	1.174
	경제*정체성							.053	.755	1.099
	가족*정체성							.173	2.360**	1.853
	학교*정체성							.118	1.229*	1.901
R ²	.091		.155		.191		.239			
수정된 R ²	.070		.115		.148		.181			
R ² 변화량			.064**		.037**		.048**			
F	2.930**		3.151***		3.685***		3.662***			

더미변수: 성별(여-0), 학교급(중학교-0), 거주지역(시 지역-0), 통일교육(미참여-0)
*p<.05, **p<.01, ***p<.001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문화가족 청소년은 보통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의식 수준은 일반 청소년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청소년은 보통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문화가족 청소년은 보통수준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두 집단에서 영향요인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요인들의 영향력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일반 청소년 집단은 국민정체성, 통일교육 참여, 사회적 배제에서의 학교생활 영역, 사회적 배제에서의 가족관계 영역, 학교급의 순으로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문화가족 청소년 집단은 사회적 배제에서의 가족관계 영역, 국민정체성, 사회적 배제에서의 학교생활 영역, 학교급, 통일교육 참여의 순으로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배제와 통일의식과의 관계에서 국민정체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일반 청소년에서는 사회적 배제의 학교생활 영역에서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나타났고, 다문화가족 청소년에서는 사회적 배제의 가족관계, 학교생활 영역에서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일반 청소년에게 있어 사회적 배제에서의 학교생활 영역과 국민정체성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보여 사회적 배제에서의 학교생활 영역

과 통일의식의 관계에서 국민정체성은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 일반 청소년들은 사회적 배제의 학교생활 영역과 국민정체성의 상호작용 항이 통일의식에 미치는 효과가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 영역은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경우에도 통일의식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나타나 학교생활에서의 배제가 많을수록 통일의식은 낮아졌다. 하지만, 국민정체성과의 상호작용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생활에서의 배제를 인식하더라도 국민정체성이 강하다면 통일의식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전개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가족관계와 학교생활에서의 배제에서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에게 있어 국민정체성은 가족관계와 학교생활에서의 배제가 통일의식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조절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통일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청소년들의 국민정체성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은 국민정체성이 강할수록 가족관계와 학교생활에서의 배제가 통일의식에 미치는 부적(-) 영향의 정도가 낮아지며, 반대로 국민정체성이 약할수록 가족관계와 학교생활에서의 배제가 통일의식에 미치는 부적(-) 영향의 정도가

높아지므로 국민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 배제에서의 가족관계와 학교생활 영역이 통일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보다 사회적 배제를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관계에서의 배제는 두 집단이 가장 큰 집단별 차이가 나타났고, 통일외식에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인식해야 한다. 선행연구도[8]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국민정체성은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차별 경험이 다른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문화변용스트레스 경험보다 국민정체성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삶에서 사회적 배제를 차단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더욱이 청소년의 생활에 있어서 문제행동의 원인으로 가족요인이 가장 많이 보고되었다[24]. 가족의 구조적 결손은 물론 가족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청소년은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고 학업 및 진학문제에 어려움을 겪으며, 심각한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하여 사회적 관심사 내지 문제에 무관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청소년에게 있어 통일교육은 그들의 통일외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일반 청소년보다 약하게 나타났음을 유념해야 한다. 현재의 청소년 통일교육은 그 효과가 미흡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활성화가 저조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25]. 이것은 통일에 대한 합리적인 개념과 객관적 자료가 입각한 공개적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들보다 한국의 사회적 상황과 미래의 비전에 대해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통일교육의 효과가 다소 낮게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탈냉전과 더불어 이전보다 북한 등에 대한 자료 접근이 보다 용이해졌다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많은 제한 속에서 이루어지는 지식과 정보의 전달은 그 효과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여러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는 다문화 수용성을 함께 제고해야 균형적인 통일외식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의 통일외식은 단일한 요인에 의

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관련 요인들이 상호 연관된 구조 속에서 형성되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사회적 특성에 따라 그 영향요인이 크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급격히 진행되는 한국의 다문화 현상과 연계하여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통일외식에 대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더욱이 한국에서 통일은 사회통합을 전제로 지향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적·법률적 통합으로서 체제통합이 아니라 사회생활 영역의 통합과정으로서 가치통합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함의에 기초하여 각 집단별로 통일외식을 고취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적·실천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2. 정책적·실천적 제언

첫째, 청소년들의 국민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국민정체성 향상에 보다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사회가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단일성으로 더 이상 포섭하기 힘든 차이를 수용하고 다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적인 한국의 교육과정에서 단일 민족주의가 강조되었던 내용을 탈피하여 다문화시대의 민족주의 개념이 재정립되어야 한다[10]. 또한,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에게 보다 적절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런 과정은 과거의 민족정체성이 다문화주의에 배타적으로 작용하거나, 다문화시대에 필요한 태도를 상쇄시키는 부작용을 제어할 수 있어서 국민적 유대감이 향상되고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태도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청소년들의 가족관계와 학교생활에서의 배제를 제거해야 한다. 특히, 다문화가족의 해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가족형태를 유지하여 가족건강성을 강화해야 한다. 더욱이 가족의 구조 및 관계적 특성에서 안정적인 가족형태는 청소년의 안정적인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17] 각 지역의 다문화가족센터에서 그들을 위한 정기적인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맞춤형 지원책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다문화가족의 청소년이 미래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단순한 사회적 재분배 차원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로써 적극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5]. 또한,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은 문화적으로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경험하는 고통과 차별을 감소시키고,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불평등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한다[26]. 이와 함께 다문화가족이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또래 간 상호존중과 신뢰를 구축하여 동질감과 유대감을 증진하고, 사회에서 다양한 집단과의 교류 및 상호작용을 통해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나아가 청소년들이 서로 다른 정치, 경제, 문화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한국에서의 통일은 국가적 상처이면서 염원임[28]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들에게 실시되는 통일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청소년들의 성향을 반영하여 통일 관련 각종 행사, 정보 및 자료의 접근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정보화하고 콘텐츠로 제작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일문제 관련 다양한 실천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이론적 학습이 아닌 실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통일 관련 교과목의 개설과 함께 학교 및 지역도서관에 북한 및 통일문제와 관련된 각종 출판물과 영상물 등의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통일 분야의 관심 증대를 유도하고,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여 장기적으로 통일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몇 가지 연구결과 및 정책적·실천적 제언을 하였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통일의식 실태에 치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더욱이 다문화가족이 증가하는 사회적 현실에서 일반 청소년과 다문화가족 청소년에 대한 실증적인 비교 연구는 진행된 적이 없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들의 사회적 특성에 따라 각 집단별로 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제언을 하였다.

또한, 한국의 다문화주의 정책은 분단 상황이라는 한반도의 특수성과 총체적 지향을 가진 독창적인 정책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으며, 통일정책은 제도와 이념의 규제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형성되는 변화에 기초할 필요가 있음을 실증적인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사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사회에 진입한 한국 사회에서의 통일정책을 재정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3.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의 방향

다만,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 청소년 집단을 더욱 광범위하게 표집하여 가족 구성, 부모 출신국가 등의 집단별로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요구되며, 이를 통해 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통일의식 향상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후속연구에서 실천해보고자 하며, 보다 정확한 결과도출은 후속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참고 문헌

- [1]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 2014.
- [2] 통일부, *청소년 통일의식조사*, 2103.
- [3] 통계청, *다문화인구동태 통계*, 2014.
- [4] 여성가족부, *청소년통계*, 2015.
- [5] 전병주,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 및 문화변용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0권, 제11호, pp.29-38, 2012.
- [6] J. T. Gibbs, “Identity and marginality,”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Vol.57, pp.265-278, 1987.
- [7] A. J. Romero, S. C. Carvajal, and M. Orduna, “Adolescent bicultural stress and its impact on mental well-being among Latinos, Asian, and European American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35, pp.519-534, 2007.
- [8] 전병주,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국민정체성에 관

- 한 연구: Heater의 이론을 적용하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2권, 제4호, pp.33-41, 2014.
- [9] 길은배, “청소년 통일교육의 문제점과 과제”, 미래청소년학회지, 제6권, 제4호, pp.257-274, 2009.
- [10] 김경은, 윤노아, “청소년의 국민정체성, 통일,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인식”, 사회과교육, 제51권, 제1호, pp.123-140, 2012.
- [11] 최대석, 조은희, “탈북 대학생들의 국가정체성 형성과 변화”, 북한연구학회보, 제14권, 제2호, pp. 215-240, 2010.
- [12] 손기웅, *독일통일 20년: 현황과 교훈*,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0.
- [13] 이경희, “통일인식 제고를 위한 대학교육 방향”, 동북아연구소, 제26권, pp.19-50, 2011.
- [14] R. Burubaker, *Citizenship and Nationhood in France and German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 [15] 이정은, 조미형, “사회적 배제 집단의 잠재적 유형 분류 및 성별과 학력에 따른 차이 분석”, 사회복지정책, 제36권, 제3호, pp.79-103, 2009.
- [16] 허정철,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이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8호, pp.433-441, 2009.
- [17] 김혜태, 최승희, “가족건강성과 학교체계요인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제30권, pp.159-182, 2009.
- [18] 조동호, *통일비용보다 더 큰 통일편익*,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1.
- [19] 박영자, “다문화시대 한반도 통일·통합의 가치 및 정책 방향”, 국제관계연구, 제17권, 제1호, pp.299-333, 2012.
- [20] C. Joppke, “The Retreat of Multiculturalism in the Liberal State: Theory and policy,”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55, No.2, pp.237-257, 2004.
- [21] 이종두, 백미연, “한국의 특수성과 다문화 정책”, 국제관계연구, 제17권, 제1호, pp.335-361, 2012.
- [22] 이중섭, 이용교,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16권, 제7호, pp.1-27, 2009.
- [23] 박정균, 황승연, 김중백, “중국 조선족 정체성의 결정요인”, 동북아연구, 제26권, 제1호, pp.149-174, 2011.
- [24] 고재수, “가족기능성과 학교적응 유연성의 관계에서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6호, pp.140-151, 2014.
- [25] 이미경, “대학생 통일인식 제고를 위한 통일교육 방안 모색”, 한국동북아논총, 제70권, pp.175-195, 2014.
- [26] 김혜성, “다문화시대 사회통합의 기초와 의미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제41권, 제4호, pp.31-49, 2009.
- [27] 김병조, “민주화 선호경향과 통일인식의 관계 분석”, 통일과 평화, 제1권, 제2호, pp.63-102, 2009.
- [28] 최은진, “통일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1호, pp.238-245, 2009.

저 자 소 개

진 병 주(Byeong-Joo Jeon)

정희원



- 2002년 8월 : 동국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 2009년 8월 : 충북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 2014년 2월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문학박사)

<관심분야> : 사회보장, 보건의료, 청소년복지